

어린이 책꽂이

▲생각쟁이를 위한 명작논술(동양 고전 편)=동·서양,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명작을 읽은 후 전문가의 질문과 가이드를 통해 논술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초등학교 4학년이 꼭 알아야 할 토끼전, 용고집전, 양반전, 장화홍련전, 심청전, 사씨남정기 등 고전이 수록됐다.

(성크하우스·9천원)

▲그 밖에 여러분=소박하고 따뜻한 심성을 지닌 우리 이웃의 이야기 일곱편이 실려 있다. 특유의 섬세한 묘사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훈훈한 감동을 준다.

(창비아동문고·8천500원)

▲인간이란 무엇인가=어린이들을 본격적인 철학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어린이 철학 책 시리즈. 주인공 레오와 철학자는 인간은 왜 사회적 동물인지, 인간의 과연 행복하지 등에 대해 토론을 나눈다.

(웅진주니어·7천500원)

▲놀라운 영웅들의 이야기=나폴레옹, 히틀러, 김기스칸, 알렉산더 대왕 등 세계의 역사를 바꾼 영웅들의 이야기를 만화로 풀어냈다. 영웅들의 일방적인 우월감 보다는 고뇌와 역경을 이겨낸 영웅들의 의지와 정신력이 흥미롭게 그려져 있다.

(브랜치북스·8천원)

▲썰매를 타고=바쁜 부모들 때문에 혼자 썰매를 타고 노는 어린이의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 우리와 아기사슴, 청설보 등 동물 친구들이 어린이를 위로하기 위해 함께 썰매를 타게 된다.

(사계절·1만500원)

국수에 얽힌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

누들 크리스토프 나이트하르트 지음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에게 '국수처럼 길게 잘 살겠다'는 의미로 국수를 대접하고, 가까운 일본은 연말과 연초를 이어준다는 의미로 메밀국수 '소바'를 12월31일 날 나눠 먹으며 장수를 기원한다.



18세기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파스타를 먹는 간이음식점 모습.

간단한 식사로 누구나 즐겨 찾는 국수가 한 나라에서는 문화이자 종교가 되기도 하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특권 계층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호사스러운 식사가 되기도 했다.

'누들'은 국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파되었으며 어떤 계층이 즐겨먹은 음식인지 등의 내용을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 배경으로 다양한 일화와 함께 소개했다.

저자인 크리스토프 나이트하트는 머리말에서 "오랜 시간 다양한 한 모습의 문화교류를 통해 각 지역으로 전파된 국수야말로 문화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라며 "국수는 4천 년 넘게 지속한 세계화의 산물이자 복합문화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파스타 애국주의자'로 불리는 이들이 매일 파스타를 먹음으로써 국가적 정체성을 확인했고, 무슬림들은 전쟁터에서 "너처럼 담근 파스타 한 접시"를 의미하며 군인들의 기분을 북돋웠

을 정도였다. 심지어 미국의 한 역사가는 "이탈리아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이탈리아 군인들의 파스타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이탈리아에서 스파게티는 신앙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국수의 역사는 4천 년이나 된다. 2005년 10월 고고학자들은 '중국의 폼페이'라 불리는 라지아 마을에서 3mm 두께에 길이가 50cm나 되는 국수를 발견했다. 그 국수는 뒤집힌 점토사발 아래 들어 있었다. 사진에서는 마치 어저께 먹다 남은 스파게티처럼 보였다."(8쪽)

중국 산시성의 시골사람들은 100가지가 넘는 국수요리를 할 수 있으며, 19세기 말까지 일본 사람들은 국수를 고기국물에 말아먹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다. 각국의 국수 문화에 대한 설명도 흥미롭다.

게다가 책 곳곳에는 언론인 출신의 저자가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맛을 봤던 다양한 국수를 통해 그 국수를 먹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문화까지 함께 전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배어있어 독자에게 아시아, 유럽 등 각국의 국수 요리와 함께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탈리아의 스파게티와 파스타, 일본의 라면과 소바, 중국의 수타면, 러시아 모스크바의 증기목욕탕에서 먹는 켈메니, 베트남 쌀국수 등 다양한 국수 문화의 현장을 삽화와 통해 느낄 수 있다.

게다가 각 나라의 국수요리의 맛과 질감, 요리법도 자세히 설명된 책을 읽고 있으면 따뜻한 국물에 잠긴 하얗고 푹푹한 면발이 담긴 국수가 저절로 생각날 지도 모른다. (시공사·1만4천원)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이종사촌 오누이의 금지된 애정행각

달을 먹다 김진규 지음

5천만원 고료 제13회 문학동네소설상 수상작인 '달을 먹다'는 정조와 순조로 이어지는 격변기를 다룬 역사소설이다. 개척근주의 치세와 의문의 죽음 등 역사의 큰 흐름을 배경으로 동시대 일반인들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흔히 역사소설이 몇몇 중심 인물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이 소설은 아홉 명의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입체적인 구조다. 제목인 '달을 먹다'는 월식(月蝕)을 우리 말로 옮긴 것. 이종사촌 오누이의 금지된 애정행각, 속살없는 짝사랑 등 어긋나고 애달픈 사랑과 운명, 죽음 등을 그렸다. 그 속에서 무수한 오해와 비극이 벌어진다. 당시의 뒷골목 풍경과 사물 등을 자세히 묘사한 작가의 섬세함이 돋보이는 책이다. 대학을 졸업한 뒤 전업주부로 살았던 작가가 처음으로 쓴 소설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문학동네·9천8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죽기전에 꼭 봐야할 '여행자 파라다이스'

윈난 박노해 외 6인 지음

중국의 윈난성은 중국인들이 꼭 보고 싶어하는 여행지. 전 세계 배낭족들이 '여행자의 파라다이스'로 꼽는 곳이다. '윈난-고원에서 보내는 편지'는 7명의 사진·여행 전문가가 만난 윈난의 풍경과 사람들을 기록한 책이다. 여행길에 나선 시인 박노해는 해발 3천m로 윈난 북부에 위치한 바오산 석두성에 앉아 레바논에 두고 온 자아니에게 편지를 쓴다. 그는 석두성에서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비경과 맑은 공기와 손에 잡힐 듯 따듯한 구름과 함께 헝거운 노동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건강한 '사람들'을 본다. 또 카피라이터 이희인씨는 원래의 이름보다 '상그리라'라는 품의 이상향으로 불리는 중원에서 낙원을 이야기한다. 그밖에 평범한 직장인 황문주씨와 사진가 정일호·이갑철·이상엽·황성찬씨가 집필자로 참여했다. (이문미·1만5천원) /김민기기자 mekim@kwangju.co.kr

내 인생 한편의 책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다. 그럴 때면 내가 나아가길 길을 알려주고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는 '인생의 나침반'같은 존재를 찾지 마련다. 필자에게는 우리들에게 '시지'로 널리 알려진 로마 공화정 말기의 정치인이자 장군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일대기를 담은 '로마인 이야기-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바로 그런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는 책이다. 15권에 이르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는 벌써 다섯 차례 넘게 완독할 정도로 필자에게 의미있는 책이다. 그 중에서도 강한 카리스마와 함께 넓은 아량과 포용력까지 갖췄던 '카이사르'의 이야기는 삶의 좌표가 되었다. 마키아벨리는 리더의 자질로서 '지성, 설득력, 지구력, 자제력, 지속적인 의지' 등을 들고 있는데, 카이사르야말로 이러한 모든 자질을 구비한 탁월한 지도자였다. 최근 지역본부장이라는 중대한 직책을 맡게 되면서 '올바른 리더십'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 필자는 이 책을 다시 한번 꺼내들게 되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등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남긴 간결하면서도 확실감이 넘치는 명언은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념을 맞아 관용정신, 개혁, 창조와

복잡한 현대 '인생 나침반' 역할

열정 등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준다. 카이사르는 부유하진 않지만 유서 깊은 귀족출신으로 어머니 아우렐리아의 각별한 애정과 가정교육을 통해 리더로서의 균형 감각을 갖추게 된다. 도시국가로 출발한 로마는 세 차례의 포에니 전쟁을 통해 고대 명장 중의 한 명인 한니발을 이끄는 카르타고를 멸망시키고, 지중해를 '내해' 또는 '우리 바다'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광대한 영토를 가진 제국으로 번모했다. 그러나 정치체제는 도시국가 시절 그대로 선거를 통해 매년 집정관 등 국가지도부를 선출하는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인 제국통치에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다. 이에 카이사르는 민중의 힘을 등에 업고 국가개조를 시도하고 황제가 통치하는 영토국가를 지향함으로써 보수파와 갈등을 빚게 된다.

그는 내전에서 승리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단기간에 달력개정, 농지개혁, 시민권의 개방, 로마 재개발 등 대규모 국가개조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제정으로의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BC 44년 그의 나이 56세에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새로운 체제로의 변화를 반대하는 원로원 의원들에게 암살되고 말았다. 원로원에서 이루어진 모든 논의나 토론을 이틀만 일반인들에게 벽보를 통해 공개하는 '집정관 통달'등의 아이디어는 오늘날에도 언론,신문의 사회적 기능을 엿볼 수 있게 하여 흥미롭다. 끊임없는 변화와 업무혁신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카이사르에게서 진정한 의미의 '관용'이란 무엇인지, 또한 '개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송기우 (KT 전남본부장)



일가공인중개사 (24)234-8216 011-609-0896 (광주주최국부)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국민공인중개사 011-635-7939, 010-3114-6103 (두암동 무등도서관사거리 농협앞편 2층)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 236-2550